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얼음 깨기

어느덧 6월!

교회행사

어느덧 6월의 첫 주간을 맞이하고 있지요.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을
함께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1_올해 상반기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2_요즈음 나의 삶을 계절로 표현한다면 언제인가요?

5월

1-5일	더함공동체 태극 단기선교
3일	어린이주일 / 오렌지데이
10일	어버이주일 / 더가족세미나 5기 개강
23-24일	더함공동체 여름수련회
30일	어와나 지역 올림픽
31일	더가족 세미나 5기 종강

6월

7,14일	풍삼초 이끄미 세미나 5기
14일	어와나 1학기 종강
15-17일	어와나 EBS
20일	더깊은 선교학교 개강 / 결혼 예비학교 개강
26-28일	더원 공동체 여름수련회

경배 찬양

은혜

-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선교

[이태균 선교사]

라오스

- 팀원들이 라오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지치지 않게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 라오스 청년들이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 팍세 지역에 적응할 때 주님의 네 지체와 사랑으로 순직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 아이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숙된 신앙을 위해서

소식

1. 호스트패밀리 모집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 정서적 지지와 생활의 도움을 나누는 선교 지역입니다. 유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길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유학생 알뜰 장터

유학생들이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기부 받습니다. 안 입고 걸어두고 있는 옷, 옷이 많아서 계절이 지나도 잘 꺼내입지 않는 옷들을 기부해주세요. 모집) 1층 사무실 앞

3. 풍삼초 이끄미 세미나

진공첫 1~6기 수료 성도 중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끄미 교육을 희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끄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일정) 6/7, 6/14 2회

한 문장 큰 울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 짐 앨리엇 -

[창50: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요셉의 죽음으로 마칩니다. 특히, 1) 야곱의 죽음 후의 형제들의 반응 2) 요셉의 죽음에 초점을 두고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지요. 창세기 50장에 나타난 이 마지막 두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1_죄책감에 갇힌 형제들 (15-21절)

[창50: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죽음 이후에 형제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7년 전에, 요셉에게 이미 용서를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17년 동안 스스로를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책감의 감옥'에서 꺼내셔서, 온전한 자유를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성경의 진리는 나에게 얼마나 와닿나요? [1-5점으로 표현]



[창50:20-21]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제들의 두려움을 본 요셉은 통곡하며 그들을 위로합니다. 요셉은 본인이 팔려간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이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악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저 상처에만 머물지 않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건강한 해석과 진정성 있는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할, 나의 인생의 상황, 어려움,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2_돌보시는 하나님 (24절)

[창50: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약속은 수백 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릴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억울한 옥살이를 할 때에도 돌보셨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집트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나, 변함없이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돌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 슬픔, 즐거움,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기도]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나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길 서로 기도합니다.

3_요셉, 믿음으로 죽다 (25절)

[창50: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110세의 나이(이집트에서 완전한 삶을 상징하는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은 이집트와 온 지역을 기근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법을 개혁함을 통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아두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요셉은 이처럼 존경받는 지도자였기에 당연히 이집트의 방식과 묘실에 장례를 진행하려 하였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화려한 이집트의 묘실에 묻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며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방식의 장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관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믿음의 표지였습니다. 후손들은 요셉의 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고, 마침내 출애굽 때에 모세는 그의 유골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하게 됩니다.(출 13:19)

[나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남기고 싶나요?
[나눔] 오늘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시리니 / 창세기 50장 15~26절]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 점을 나눕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말씀을 비추하고 기도를 쌓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나눔	용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받아주셨음을 받아들입니다. 온전한 자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다시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신 약속 붙잡고,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